

영아의 정서조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유형 간의 관련성*

Strategies for Emotional Regulation in Infancy and Maternal Responsiveness*

곽금주(Keumjoo Kwak)¹⁾

김민화(Minhwa Kim)²⁾

한은주(Eun Joo Hahn)³⁾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relations between infants' strategies for emotional regulation and maternal responsiveness. Fifty 24-month-olds were observed for six kinds of emotional regulation strategy during four negative emotion-eliciting tasks; their mothers were observed for five styles of maternal responsiveness during toy-centered free play. Infants used different strategies according to the kinds of negative emotion-eliciting tasks; their strategies correlated with maternal responsive styles. In the anger-eliciting tasks, infants used "distraction" and "self soothing." In the fear-eliciting tasks, they used "avoidance" and "problem solving." Infants who received more negative feedback from their mothers used the "irritation" strategy. Infants who got received more positive feedback from their mother used the "getting reference" strategy.

Key Words : 정서조절 전략(strategy for emotional regulation), 어머니의 반응성(maternal responsiveness), 영아-모 상호작용(infant-mother interaction).

I. 서론

인간은 신생아기부터 주변 환경의 여러 자극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를 느낀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환경적 자극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격

양된 정서를 조절하고자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정서조절에 효율적인 전략들은 선택적으로 발전시켜나가며, 이것은 이후 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된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정서의 역할을 강조하

* 본 연구는 2002년-2005년까지 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한 기초학문육성과제(KRF-2002-074-HM 1006)의 일부이다.

¹⁾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²⁾ 한국아동발달지원센터원장,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³⁾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Corresponding Author : Minhwa Kim, The Center for Children's Health Development, Korea

E-mail : educhild@korea.com

는 기능주의 관점에서 보면, 정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 유지, 변화 및 종결시키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Bretherton, Fritz, Zahn-Waxler, & Ridgeway, 1986; Campos, Mumme, Kermonian, & Campos, 1994), 자기 보호적이고 적응적인 기능을 가진다(Dunn, Bretherton, & Munn, 1987).

이러한 중요성의 인식으로 정서조절능력에 관한 연구는 사회인지 영역의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었다(Grolnick, Kurowski, McMenemy, Rivkin, & Bridges, 1998).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서조절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는 실정이다(Diener & Mangelsdorf, 1999). 정서조절을 정의하는 개념들 중에서 Kopp(1989)과 Thompson(1994)의 정서조절에 대한 개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정서조절이란 개인이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수정하려는 외적이며 내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정서조절 전략의 효율적인 사용은 건강한 사회정서발달을 위한 목표이며, 이후의 성공적인 인지수행(Sarason, 1984)이나 정신병리적인 문제(Cole, Michel, & Teti, 1994)와도 관련되는 중요한 발달과제가 된다.

발달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주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행동조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김경희, 2004; 이옥임, 1996; Halpern, 1999, 2001; Rossman, 1992; Zeman & Gaber, 1996). 그러나 최근 들어 초기 아동기가 다양한 발달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정서조절 기술 및 전략의 필요성을 점차 획득하게 되는 시기이며(Cicchetti, Ganiban, & Barnett, 1991; Kopp, 1982, 1989; Tronick, 1989), 특히 걸음마기는 영아가 양육자의 통제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을 기르기 위한 조절능력이 발달되는 중요한 시기임(Calkins & Johnson, 1998)이 거론되면서 영

아기 연구가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영아기 연구들은 정서조절을 영아가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수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적 전략을 취하는가에 초점을 두어왔다(Calkins & Johnson, 1998; Diener & Mangelsdorf, 1999; Grolnick, Bridges, & Connell, 1996; Mangelsdorf, Shapiro, & Marzolf, 1995; Rothbart, Ziaie, & O'Boyle, 1992). 따라서 영아기 연구들은 위축(withdrawal), 사물 지향적인 주의전환(distraction), 스스로의 안정감을 찾기 위해 손가락을 빨거나 머리를 끄는 자기안정화(self soothing), 적극적인 문제해결 행동 등 영아가 직면한 좌절 상황에 의해 유발된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하거나 변화시키고자 하는 행동적 전략에 관심을 두고 이것들은 정서조절 연구에 객관적인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정서조절전략은 영아의 연령과 유발된 정서의 종류에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Buss & Goldsmith, 1998). 영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안과 같은 정서를 감소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더 성숙하고 계획된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Gianino와 Tronick(1988)은 3개월부터 9개월까지는 모방 전략 중의 하나로써 정서 유발대상에 주의하려는 경향성을 발견하였다. 운동이나 지각적 철회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수동적인 이탈의 형태가 매우 어린 영아에서 더 전형적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손을 꼭 쥐는 것과 같은 몸의 긴장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Grolnick 등(1996)은 다른 장남감과 관련된 활동(예. 주의전환)은 2세경에 더 자주 사용되는 반면 자기안정화는 2세경에는 비교적 덜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마찬가지로, Mangelsdorf 등(1995)은 연령에 따라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영아의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주의전환 전략의 사용이 증가하였고, 12개월과 18개월 영아는 6개월 영아보다 자기 지향적 행동과 회피반응이 더 많았다. 또한, 12개월 영아는 18개월 영아보다 자기안정화(예. 손가락 빨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데는 타고난 성이나 기질과 같은 내적 요인(김경희, 2004; Gauvain & Fagot, 1995; Halpern, 1999, 2001)과 양육자의 상호작용 유형과 같은 외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Calkins & Johnson, 1998; Diener & Mangelsdorf, 1999; Gianino & Tronick, 1988; Grolnick, et al., 1998; Parritz, 1996). 어머니 보고에 의한 영아의 기질이 정서조절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어온 바이나, 타고난 내적요인들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들과는 달리 외적 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까지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요인, 특히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들은 영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이후 사회 정서적 발달에 있어 환경적 개선을 통한 중재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실용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만 2세를 전후하여 영아는 양육자의 통제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동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양육자의 역할이 특히 더 중요한 이슈가 된다(Calkins & Johnson, 1998). 또한 이 시기는 표상적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로서, 영아가 양육자의 의도나 상호작용 패턴을 기억하였다가 이후 정서조절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양육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이렇듯 영아의 정서조절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자 특히 어머니로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의 질이 영아의 정서적 표현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정서조절 행동에 영향을 주며, 이것은 이후 사회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Bornstein & Tamis-Lemonda, 2001; Bridges & Grolnick, 1995; Cassidy, 1994; Tronick, 1989).

더 나아가, Kopp(1989)는 양육자의 지원이 영아와 어린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는데, 이는 아동이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잠재적인 전략들을 양육자를 통해 학습하기 때문이다. 즉, 걸음마기가 되면 영아들은 부정적인 정서의 유발 원인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원인을 바꾸거나 혹은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어머니를 통해 학습한 전략들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적인 전략들이 발전적으로 잘 이행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다.

Diener와 Mangelsdorf(1999)는 18개월과 2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정서조절에 대한 이러한 개념과 정서조절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자의 중요성을 관련지어 연구하였다. 그들은 공포와 분노라는 두 가지 정서유발 상황에서 어머니의 도움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즉 어머니의 지지가 주어지는 상황적 변인에 따라 어떻게 영아의 행동전략이 변화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가 지지하는 상황에서 영아들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과 어머니로부터의 사회적 참조를 더 많이 얻고자 하였으며, 어머니의 지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 많은 도움을 청하였다. 또한 Calkins와 Johnson(1998)은 18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좌절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전략과 자유놀이 상황에서 어머니가 영아와 상호작용하는 유형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영아행동 목록은 Diener와 Mangelsdorf(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하였으며, 또 다른 변인으로 첨가된 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은 긍정적, 부정적, 간섭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연구되었다. 결과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유형은 영아의 주의 전환, 적극적 대처행동과 관련이 있었다. 즉, 긍정적인 피드백과 안내를 제공하는 어머니를 가진 영아들은 좌절상황에 접했을 때 사물 지향적이며 더 성숙하고 적극적인 대처 행동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렇듯 영아기 정서조절능력의 발달과 어머니의 상호작용과의 관련성이 이후 보다 나은 발달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영아기에 빈번하게 관찰될 수 있는 정서조절 전략들과 이것이 각성된 정서의 종류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에 차이가 있는지 등과 같은 기초적 관찰에서부터 어머니의 어떠한 상호작용 방식이 보다 효율적인 영아의 정서조절행동과 관련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영아기 사회정서 발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험상황에서 정서조절행동을 직접 관찰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실제적인 실험상황에서 나타난 영아들의 정서조절 전략들을 관찰하고, 영아와 어머니들의 자유로운 놀이상황에서 측정된 어머니들의 반응양식이 영아들의 정서조절 전략사용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포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 유발 상황에서 보이는 영아들의 정서조절 전략을 선행연구(Calkins & Johnson, 1998, Diener & Mangelsdorf, 1999)에 입각하여 6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장난감 놀이에서 보이는 어머니의 반응양식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알아보았다.

<연구문제 1> 부정적인 정서 상황에서 보이는 영아의 정서조절 전략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놀이상황에서 보이는 어머니의 반응유형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영아의 정서조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유형 간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대 한국영아발달연구센터의 종단연구에 참여한 영아와 어머니들 중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모집된 24개월 영아와 어머니 50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총 59쌍의 연구 참여 영아와 어머니들 중 영아의 심한 울음 등으로 실험을 완수하지 못한 쌍들을 제외한 인원수에 해당된다. 연구대상 영아들의 평균 월령은 24.6개월(범위 : 23.8~25.1개월)로, 남아 22명(평균 : 24.1개월, 범위 : 23.1~25.1개월), 여아 28명(평균 : 24.2개월, 범위 : 23.8~25.5개월)이었다.

2. 연구도구

1) 영아의 정서조절전략

영아의 정서조절 전략들은 분노와 공포 등 부정적인 정서유발 상황을 제시하고 이 때 보이는 영아들의 행동관찰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영아에게 분노와 공포를 유발할 것이라고 가정된 상황의 설정은 Calkins와 Johnson(1998) 그리고 Diener와 Mangelsdorf(1999)의 연구에 기초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그 동안의 많은 선행연구들(예, Grolnick, Bridges, & Connell, 1996; Mangelsdorf, Shapiro, &

Marzolf, 1995; Rothbart, Ziaie, & O'Boyle, 1992) 들에서 사용한 정서유발 상황과 정서조절행동전략들의 공통점들을 종합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이들의 연구에 근거한 정서유발상황과 정서조절행동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 분노유발상황

① 높은 의자 : 영아와 어머니의 자유로운 놀이를 중단시키고 실험자가 영아와 어머니에게 의자에 앉을 것을 권하였다. 영아가 의자에 앉으면 안전벨트를 매어 의자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장치했다. 실험자는 영아에게 밖에 나가서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올 테니 기다리라고 말하고 실험실 밖으로 나갔다. 영아가 실험자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는 영아에게 아무런 반응도 해주지 않고 옆 의자에 앉아있게 하였다. 돌아오지 않는 실험자를 기다리는 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게 장치된 의자에서 보이는 영아의 행동을 비디오 녹화하였다.

② 눈 내리는 마을 : 실험자는 영아에게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노래가 나오면서 유리구슬 안에 눈이 날리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되어있는 장난감을 영아들에게 보여준다. 예비 실험 결과 이 장난감은 24개월 영아도 쉽게 작동할 수 있었다. 만일 영아가 지정된 장난감에 흥미를 보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어머니에게 영아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실험에 참여하도록 부탁하였으며, 흥미를 보이지 않는 영아는 집에서 가지고 온 장난감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자는 영아에게 장난감을 보여준 후 작동 방법을 가르쳐주고 가지고 놀 수 있게 하였다. 영아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면, 실험자는 이 장난감을 슬며시 가져와 영아의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손이 닿지 않는 책상 끝부분에 놓아두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인 영아

의 행동을 비디오 녹화하였으며, 영아의 어떠한 행동에도 어머니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공포유발상황

① 가면 쓴 강아지 : 건전지로 작동되는 강아지 인형에 고릴라 얼굴의 가면을 씌워 공포유발 자극으로 사용하였다. 먼저 고릴라 가면을 씌운 강아지를 책상의 끝부분에 놓고 스위치 작동하여 멍멍 소리와 함께 영아에게 점점 다가가도록 하였다. 가면 쓴 강아지 자극은 90초 동안 만을 유지하였고, 그 중간에 심한 울음과 공포반응을 보이는 영아에게는 그 즉시 자극을 제거해 주었다. 다른 영아들은 90초 동안 그들이 나타낸 행동을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② 거미 장난감 : 검정색의 털이 많은 거미 장난감을 공포유발 자극으로 사용하였다. 이 장난감은 펌프로 바람을 넣으면 움직이는 것으로, 가면 쓴 강아지 장난감과 마찬가지로 책상 끝부분에서 시작하여 점차 영아 앞으로 진행하게끔 조작하였다. 조작시간은 90초를 넘지 않도록 하였고, 심한 공포반응을 보이는 영아에게는 그 즉시 자극을 제거해 주었다. 마찬가지로 영아의 행동을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분노와 공포유발상황들의 중간 중간에는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을 삽입하여 부정적으로 각성된 영아의 정서 상태를 완화시키도록 하였다. 긍정적인 정서유발상황에서의 영아행동은 분석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분노와 공포유발 상황에서 녹화된 영아의 행동은 각각 90초 동안을 발췌하여 정서조절전략을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영아의 정서조절 전략은 Calkins와 Johnson(1998) 그리고 Diener와 Mangelsdorf(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행동목록에 기초하여 다음의 <표 1>과 같이 6가지로 범주화하였다. 90초 동안의 녹화 분을 5초 간격으

〈표 1〉 영아의 정서조절 전략

전략유형	조작적 정의
짜증내기	도움을 구하거나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없이 혼자서 짜증을 내는 행동. 예를 들면 칭얼거리거나 울먹이면서 책상을 손이나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이 해당됨.
참조구하기	어머니의 얼굴표정을 살피거나 어머니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자 시도하는 행동. 예를 들면 어머니와의 눈 맞춤 시도 행동이 해당됨.
주의전환	주어진 자극상황으로 향했던 주의를 철회하고 다른 곳으로 주의를 전환시키는 행동. 예를 들면 실험실 안에 있는 다른 사물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행동이 해당됨.
회 피	주어진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행동. 예를 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몸을 비틀어 돌리거나 자리를 이탈하는 행동이 해당됨
문제해결	주어진 상황을 중단시키거나 변화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시도 행동. 예를 들면 어머니에게 장난감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이나 작동 중인 장난감을 손으로 밀쳐내는 등의 행동이 해당됨.
자기안정	도움을 구하거나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없이 스스로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행동. 예를 들면 손가락 빨기, 손이나 머리 등을 꼬는 것과 같은 자기 조작적 행동이 해당됨.

로 나누고 각각의 정서조절 전략 행동의 발생여부를 시간표집 후 기록하였다. 그러나 5초 이내에도 영아가 두 가지 이상의 전략적 행동을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관찰된 모든 전략행동들을 각각 분리된 행동으로 채점하여 점수를 주었다. 따라서 5초 이내에 동일한 전략행동이 1점 이상으로 채점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이상의 전략 행동에 대한 채점은 가능하였다. 이렇게 해서 얻은 각각의 정서조절 전략들의 관찰점수는 0-18 점 범위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동일한 정서유발 상황에서는 유사한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분노를 유발하는 2가지 상황과 공포를 유발하는 2가지 상황 간 전략사용의 유사성을 알아본 결과 각각의 2가지 상황들은 유사한 정서를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분노유발 상황 간 $r=.40, p<.01$; 공포유발 상황 간 $r=.55, p<.01$).

2) 어머니의 반응유형

어머니의 반응유형은 구조화된 실험실 상황에

서 영아와 어머니의 자유놀이관찰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영아와 어머니는 정해진 병원놀이 세트를 받고 5분간 자유롭게 병원놀이를 하였고 이후 장난감을 정리하는 별도의 놀이 시간을 가졌으며, 놀이는 비디오로 녹화되었다. 5분간 이루어진 병원놀이 장면은 10초 간격으로 나누어 어머니의 반응유형들을 시간표집하는 데 사용되었다. 어머니의 반응유형의 측정은 Calkins와 Johnson(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행동목록을 수정 보완하였다. 예비실험결과, 이들의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의 반응양식 3가지, 즉 '긍정적 반응', '부정적 반응', '간섭' 이외에도 어머니들은 혼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관찰하는 경우와 자신의 놀이 활동에 영아를 개입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관찰되어 '혼자놀이'와 '참여유도'의 반응유형을 더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의 반응유형 5가지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1) 측정의 신뢰도

영아와 어머니의 행동을 평정하기 위해서 십

〈표 2〉 영아와 어머니 간의 놀이상황에서 관찰된 어머니의 반응유형

반응유형	조작적 정의
긍정반응	영아의 행동에 애정 표현하는 신체적 행동과 언어적 격려를 통하여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어머니의 반응. 껴안아주기, 뽀뽀하기, 가볍게 엉덩이를 두르려주기 등과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는 등의 행동이 포함됨.
부정반응	영아에게 신체적인 통제와 제약을 가하거나 언어적으로 영아의 행동을 조정하려하는 어머니의 반응. 영아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잡아당기거나 밀어내는 등의 행동과 언어적 제지가 포함됨.
혼자놀이	영아의 흥미와는 상관없이 어머니가 장난감에 흥미를 느끼고 영아를 제외한 채 장난감을 탐색하는 행동이나 영아가 혼자 노는 것을 단순히 바라만 보는 행동이 이 영역에 포함됨.
우선개입	영아가 장난감을 탐색하고 상징놀이를 시도하기도 전에 어머니가 먼저 영아에게 상징놀이를 소개하고, 도구의 명칭이나 용도 등을 설명하여 영아의 참여를 지연시키는 행동이 포함됨.
참여유도	어머니가 영아에게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할 것을 유도하는 상황으로, 청진기를 쥐어주면서 어머니의 배를 내미는 행동 등이 포함됨.

리학과 아동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4명이 비디오 코딩을 하였다. 이들의 평정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영아와 어머니 17쌍을 무선 표집한 후, 무선할당 된 2명의 평정자들이 동일한 비디오 샘플을 다시 평정하게 하여 그들 간의 일치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영아의 정서조절 전략에 대해서는 $\alpha=.74$, 어머니의 반응유형에 대해서는 $\alpha=.85$ 를 얻어 측정된 자료가 신뢰로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연구절차

대상 영아와 어머니의 쌍은 실험에 참여하기 위하여 미리 예약된 시간에 대학 내 실험실에 방문하였다. 실험실 안에는 200cm×220cm 크기의 놀이방을 설치해 놓았고, 그 방안에서 실험을 할 것을 안내받았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영아와 어머니가 자유롭게 놀이방 안을 둘러 볼 수 있도록 하여 영아가 실험실 상황에 적응이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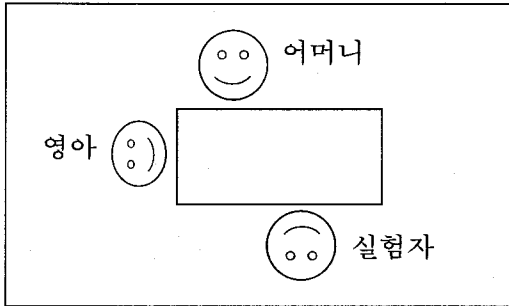
이후 영아와 어머니에게 아기 인형, 주사기,

청진기, 체온계 등 13가지의 병원놀이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장난감들을 바구니에 담아 제시하였고, 5분 동안 함께 놀이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 5분이 경과된 후에는 어머니가 영아에게 가지고 놀던 병원놀이 장난감들을 바구니에 정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때 어머니는 가정에서 하던 방식대로 지시할 수 있으나 대신 장난감을 정리해주지는 못하도록 하였다.

병원 놀이가 끝난 후에 실험자는 이후에 실시될 정서조절전략 사용 실험에 대해 어머니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영아들이 경험할 정서 상황에 대한 양해와 함께 참여여부 동의서를 받았다.

정서조절전략 사용 실험을 위해서는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배치로 영아와 어머니, 그리고 실험자가 위치하였다.

어머니에게는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준비된 책을 보도록 하여 실험이 이루어지는 동안 어머니와 영아 간의 눈 맞춤이나 상호작용을 제한하였다. 이는 영아가 실험 자극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어머니에게 반응을 참조하기



〈그림 1〉 정서조절전략 사용 실험에서의 자리배치

보다는 자발적인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만약 영아가 어머니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우, 어머니는 “응, 그래~”, “잠깐만!”과 같이 간단한 반응과 간헐적인 주시만을 할 것을 지시받았다.

영아의 정서조절 전략 사용을 위한 에피소드들은 분노, 공포,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에피소드 2개씩 총 6개로 구성되었다. 정서유발 에피소드에 대한 설명은 연구도구의 부분에 제시하였다. 긍정적 정서 에피소드는 분노와 공포 자극으로 인해 각성된 영아의 정서 상태를 완화시켜주기 위해 삽입되었으며, 따라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정서유발 에피소드들은 분노 유발 에피소드(높은 의자), 분노 유발 에피소드(눈 내리는 마을), 긍정적 정서 유발 에피소드(천으로 된

공 가지고 놀기), 공포 유발 에피소드(가면 쓴 강아지), 긍정적 정서 유발 에피소드(말 타는 인형 가지고 놀기), 공포 유발 에피소드(거미 장난감)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이때 부정적인 정서유발 에피소드들은 제시 후 90초 동안으로 시간제한을 두었고, 영아가 과도한 공포 반응을 30초 이상 보일 경우 자극을 제거하였으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긍정적인 정서 유발 에피소드는 영아의 각성된 감정 상태가 완화될 때까지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 때 영아가 긍정적 정서 유발을 위해 제시한 장난감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했던 장난감들을 보는 앞에서 꾸짖거나 하여 기분을 풀어 주었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영아의 정서조절 전략

영아의 6개 정서조절 전략의 남녀별, 정서 유발 에피소드별 평균빈도와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노 유발 에피소드에서 남아는 여아보다 ‘회피’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t=9.84, df=49, p<.05$), 공포 유발

〈표 3〉 정서유발 에피소드와 남녀별 영아의 정서조절전략 빈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정서조절 전략	분 노			공 포			전 체 (n=50)
	남(n=22) M(SD)	여(n=28) M(SD)	합(n=50) M(SD)	남(n=22) M(SD)	여(n=28) M(SD)	합(n=50) M(SD)	
짜증내기	2.20(2.17)	1.55(1.57)	1.84(1.87)	1.86(1.44)	1.60(1.40)	1.72(1.41)	1.78(1.28)
참조구하기	1.95(1.09)	2.25(1.39)	2.12(1.26)	1.84(1.49)	2.28(1.43)	2.09(1.45)	2.10(1.13)
주의전환	3.68(2.53)	3.96(2.28)	3.84(2.37)	.22(.61)	.46(.74)	.36(.69)	2.10(1.28)
회 피	.95(2.39)	.17(.61)	.52(1.68)	2.86(2.83)	2.60(3.29)	2.72(3.07)	1.62(1.68)
문제해결	1.27(1.98)	1.39(2.18)	1.34(2.07)	3.50(3.56)	2.46(3.21)	2.92(3.37)	2.13(2.31)
자기안정	5.50(5.12)	8.28(4.91)	7.06(5.14)	2.90(3.55)	4.00(4.48)	3.52(4.10)	5.29(4.00)
전 체	2.59(.78)	2.94(.54)	2.78(.67)	2.20(.81)	2.24(.89)	2.22(.84)	5.00(1.10)

상황에서 여아가 ‘주의전환’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t=4.01, df=49, p<.05$). 다른 정서조절 전략에서의 유의한 성차는 없었다. 그러나 분노 유발 에피소드에서의 ‘회피’와 공포 유발 에피소드에서의 ‘주의전환’ 전략 간의 성차는 정서 유발 에피소드 간에 차이를 보이는 정서조절 전략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영아는 분노 유발 에피소드에서 ‘주의전환’과 ‘자기안정’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 반면(주의전환: $t=10.35, df=49, p<.01$, 자기안정: $t=5.26, df=49, p<.01$), 공포 유발 에피소드에서는 ‘회피’와 ‘문제해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회피: $t=4.28, df=49, p<.01$, 문제해결: $t=3.53, df=49, p<.01$). 즉, 영아는 분노상황에서는 다른 사물로 관심을 돌림으로써 혹은 신체 조작이나 움직임을 반복하는 것으로 화가 난 감정을 조절하려 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대로 공포상황에서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거나 거꾸로 공포유발 대상에 어떠한 조작을 가하여 공포를 극복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분노 유발 에피소드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회피’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지만, ‘회피’ 전략은 공포 유발 에피소드에서 남녀 모두가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하였다. 따라서 ‘회피’ 전략은 공포정서에 특징적인 정서조절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의전환’ 전략은 공포 유발 에피소드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많이 사용하였지만, 분노 유발 에피소드에서는 남녀 모두 많은 사용을 하였다. 따라서 ‘주의전환’은 분노 상황에 특징적인 정서조절 전략이라 할 수 있다.

2. 어머니의 반응유형

영아와 어머니의 병원놀이 상황에서 측정한 어머니의 반응유형 5가지의 평균빈도와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표 4> 어머니의 반응유형별 평균빈도와 표준편차

상호작용 유형	M(n=50)	SD
긍 정 적	2.82	3.10
부 정 적	1.98	2.43
혼자놀이	3.46	3.18
우선개입	10.84	3.05
참여유도	3.70	3.70

영아와 어머니 간의 자유로운 병원놀이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반응유형은 ‘우선개입’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는 놀이상황에서 영아에게 장난감이나 놀이 방법의 선택에 있어 우선권을 주기 보다는 자신의 주도과 개입 하에서 놀이를 이끌어 가는 경향이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우선 개입이 영아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가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하여 어머니의 반응유형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우선개입’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우선개입’이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반응이기 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우선개입’ 반응이 많은 어머니들은 ‘긍정적’인 반응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간에는 부적 관련성을 보였지만, 유의미한 관련성은 없었다.

<표 5> 어머니의 반응유형 간 상관

유 형	긍정적	부정적	혼자놀이	우선개입
긍 정 적	1.0			
부 정 적	-.13	1.0		
혼자놀이	-.34*	-.05	1.0	
우선개입	.43*	.12	-.18	1.0
참여유도	-.07	.01	.28	-.23

* $p<.05$

한편, '혼자놀이'는 '긍정적'인 반응유형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것은 어머니가 '혼자놀이'를 많이 할수록 영아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덜 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혼자놀이'는 '긍정적'인 반응과 '우선개입'과는 부적상관이 있었다. 반면, 그 관련성의 정도는 낮을지라도 '부정적' 반응과 '참여유도'와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 어머니의 '혼자놀이' 반응은 영아의 관심사에 대한 반응 없이 놀이를 자기중심적으로 주도하는 어머니들의 특징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영아의 정서조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유형 간의 관련성

영아의 정서조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유형 간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을 보면, 영아의 '참조구하기' 전략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반응, '우선개입' 반응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이는 앞선 결과 보고에서 어머니의 '긍정적'인 반응과 '우선개입' 반응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어, 이 두 가지 반응유형이 영아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는 어머니의 특징 중 하나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아의 정서조절 전략 중 '참조구하기'는 긍정적으로 반응

<표 6> 영아의 정서조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유형 간의 관련성

정서조절 전략	긍정적	부정적	혼자놀이	우선개입	참여유도
짜증내기	.14	.37**	-.21	.02	-.03
참조구하기	.33*	.01	-.17	.28*	-.16
주의전환	.15	-.20	.13	.18	.07
회 피	-.11	-.00	-.04	-.13	.13
문제해결	-.01	.43**	-.01	-.10	-.11
자기안정	-.13	-.01	.04	-.03	.07

* $p < .05$ ** $p < .01$

해 주는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전략이었다.

한편, '짜증내기'와 '문제해결' 전략은 어머니의 '부정적'인 반응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즉, 어머니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받는 영아는 정서조절 상황에서도 짜증을 내는 것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머니의 '부정적'인 반응과 '문제해결' 전략 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영아에게 제시된 에피소드가 유발하는 정서의 종류에 따라 정서조절 전략 사용과 어머니의 반응유형과의 관련성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표 8>에 제시되었다.

<표 7> 분노 유발 에피소드에서의 정서조절 전략 사용과 어머니의 반응유형 간의 관련성

정서조절 전략	긍정적	부정적	혼자놀이	우선개입	참여유도
짜증내기	.08	.36**	-.18	-.06	-.15
참조구하기	.23	-.16	-.14	.23	-.27
주의전환	.13	-.21	.13	.22	.03
회 피	-.17	.33*	-.23	-.06	-.16
문제해결	-.12	.23	.10	-.41**	.06
자기안정	-.08	-.08	-.01	-.00	.10

* $p < .05$ ** $p < .01$

<표 8> 공포 유발 에피소드에서의 정서조절 전략 사용과 어머니의 반응유형 간의 관련성

정서조절 전략	긍정적	부정적	혼자놀이	우선개입	참여유도
짜증내기	.149	.197	-.141	.115	.144
참조구하기	.301*	.153	-.143	.235	-.017
주의전환	.107	-.020	.053	-.098	.139
회 피	-.023	-.183	.076	-.107	.234
문제해결	.053	.438**	-.070	.109	-.186
자기안정	-.143	.079	.083	-.054	.011

* $p < .05$ ** $p < .01$

<표 7>에서 보면, ‘짜증내기’와 ‘회피’가 분노 유발 에피소드에서 어머니의 ‘부정적’인 반응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짜증내기’전략과 어머니의 ‘부정적’인 반응간의 관계는 예측할만한 결과였다. 그러나 영아의 ‘회피’전략과 어머니의 ‘부정적’반응과의 관련성은 주목하여야 할 결과이다. 앞선 결과에서 ‘회피’전략은 분노상황보다는 공포상황에 더 특징적인 정서조절 전략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부정적’반응을 많이 받는 영아는 분노상황에서 주된 전략으로 지적되었던 ‘주의전환’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떨어지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려고 하는 ‘회피’전략의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문제해결’전략의 경우도 어머니의 ‘부정적’인 반응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우선개입’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어 어머니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주로 얻는 영아에게는 ‘문제해결’전략의 사용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과 되었다.

<표 8>에 제시된 공포 유발 에피소드에서의 정서조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유형 간의 관련성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즉, 어머니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얻는 영아는 공포 상황에서도 ‘참조구하기’전략을 많이 사용한 반면, 어머니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얻는 영아는 공포상황에서 특징적인 정서조절 전략인 ‘회피’가 떨어지고 오히려 ‘문제해결’전략의 사용이 유의하게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어머니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받는 영아는 일반적으로 특정 정서에 특징적인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의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문제해결’전략의 경우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어머니의 반응과는 역 상관을 보이고 부정적인 어머니의 반응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내어 ‘문제해결’전략 사용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정적 정서 상황에서 영아가 자신의 격앙된 정서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리고 영아가 사용하는 정서조절 전략들이 어린연령에서는 가장 중요한 외적 요인인 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4개월 영아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분노와 공포 유발 상황에서 보이는 영아의 정서조절 행동과 놀이 상황에서 관찰된 어머니의 반응유형들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24개월의 어린 영아도 유발된 정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대처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정서조절 전략의 종류는 분노 유발상황과 공포유발상황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떠한 유형의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는가에 있어서는 Diener와 Mangelsdorf(1999)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발된 정서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한 점에서는 일치하는 바가 있었다. 영아는 공포상황에서 자극을 회피해 버리거나 혹은 정반대로 매우 적극적으로 공포 자극을 밀어버린단지 언어로 표현하는 등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반면, 분노상황에서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물로 주의를 돌리는 전략을 사용하거나 발을 구르고 책상을 치는 등 자신의 긴장수준을 낮추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였다.

또한 공포상황보다는 분노상황에서 더 많은 전략행동들이 나타났다. 이는 분노상황이 공포상황과 비교하여 부정적 감정의 각성수준이 낮아 정서를 조절하고자 주위인물이나 다른 사물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포상황은 갑자기 높은 각성수준을 이끌어내어 매우 위축된 소극적인 행동을 하

거나 역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손으로 밀쳐버리는 매우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들이 상반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사실은 영아의 정서조절 행동 중 '자기안정' 전략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들(Grolnick, et al., 1996; Mangelsdorf, et al., 1995; Parritz, 1996)을 보면 '자기안정'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정서조절 전략으로 대개 만 2세가 되면 그 빈도가 감소하며, 반대로 '주의전환'과 같은 전략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영아는 분노와 공포 유발 에피소드 모두에서 '주의전환'보다는 '자기안정' 전략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영아기 정서조절행동에 대한 차후 연구들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 정서조절행동의 발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적 차이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과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긍정적', '부정적', '우선개입', '혼자놀이', '참여유도' 등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어머니의 반응유형에서도 선행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우선, 어머니의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유형 간에 부적 관련성을 보인 점은 Calkins와 Johnson(199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혼자서 장난감을 탐색하는 행동과 같은 '혼자놀이'를 많이 할수록 영아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기회가 줄어든다는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혼자놀이'와 '긍정적', '참여유도' 반응 간에는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경우 '혼자놀이'가 이후 영아를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장난감 탐색의 시간이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5가지 반응유형 중에서 '우선개입'이 가장 많

은 빈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Calkins와 Johnson(1998)의 연구에서 보고된 어머니들의 상호작용 유형 간 평균 수치와 매우 상이한 결과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보면, 어머니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우선 개입과 같은 간섭은 오히려 부정적인 상호작용 빈도보다도 낮게 나와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상호작용 패턴과 매우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를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부정적이고 적응적이지 못한 반응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차이가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특징적인 반응양식인가를 밝히고, 만약 그렇다면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대해서는 방식에서의 문화적인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차후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영아의 정서조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유형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보다 적응적이고 성숙된 정서조절 전략으로 간주되었던(Calkins & Johnson, 1998; Diener & Mangelsdorf, 1999) '참조구하기' 전략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반응과 유의하게 관련되는 반면, '짜증내기'와 같은 정서조절 전략은 부정적인 반응과 관련되었다. 이를 통하여 어머니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영아로 하여금 타인과 교류하며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전략사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특기할 사항은 어머니의 부정적인 반응과 영아의 '문제해결' 전략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Calkins와 Johnson(1998)의 결과와는 반대되는 것이었다. 여기서 영아의 본 연구에서 측정된 '문제해결' 전략이 실제로 어떠한 기능을 하였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영아의 '문제해결' 전략은 유발된 정서의 종류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었다. 분노 유발 상황에서 관찰된 영아의 '문제해결' 전략은

자극의 속성을 바꾸고자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점에서 공포상황에서 관찰된 ‘문제해결’ 전략과 동일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공포상황에서 나타난 공격적인 행동이 덜 포함되었다. 즉, 공포상황에서 영아의 행동은 공포 자극을 향해 “저리가!”라고 소리치거나 자극을 밀치는 행동이 많았고 이를 ‘문제해결’ 목록에 포함시켰던 반면, 분노상황에서는 스스로 어떠한 조작을 해보려는 시도들이 더 많았고 이것이 ‘문제해결’ 전략에 포함되었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분노와 공포유발 에피소드에서 보였던 영아의 전략행동과 어머니의 반응유형간의 관련성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즉, 분노상황에서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반응과 영아의 ‘문제해결’ 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던 것에 반해 공포상황에서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관련성은 어머니가 “안돼!”, “하지마!” 등과 같은 부정적인 언어 표현을 하거나 영아를 잡아당기거나 밀어내는 부정적인 신체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 영아가 정서적으로 더 각성되고 격앙된 상황에서 동일한 대처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지적할 점은 영아의 ‘참조구하기’ 전략과 어머니의 ‘우선개입’ 반응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나왔던 점이다. 앞서 어머니의 ‘우선개입’이 부정적인 의미로만 해석될 수 없다는 논의를 한 바 있지만, 영아기 사회적 상호작용의 발달적 패턴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24개월 정도의 연령에서 긍정적인 반응양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6개월 미만의 영아들은 주도적인 행동이 적기 때문에 어머니의 적극적이고 우선적인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Pecheaux, Findji, & Ruel, 1992), 1세가 넘어서는 시기부터는 영아의 주도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머니의 개입보다는

한걸음 물러선 반응적인 태도가 영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Dunham & Dunham, 1992; Tomasello & Farrar, 1986). 이러한 입장과 현재의 연구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본 연구에 참여한 영아들은 사회정서적인 발달에 있어 어머니로부터 독립된 주도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어렵고 늦은 연령까지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발달적인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양육방식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어머니들의 주된 양육방법이 자녀의 이후 발달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종단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24개월을 전후한 어린 연령에서도 각성된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행동을 하며, 자신의 각성된 정서를 조절하고자 행동을 계획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건강한 사회적, 정서적 적응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보면 영아기 정서조절 능력에 관한 연구는 학문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가치가 충분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서조절의 근원을 이해하고 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과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하여 이후 적응적인 삶을 위한 발달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예측하는데 작은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향후 연구들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었던 것에 비하여 인과적인 관련성을 보고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지는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통제되고 구조화된 실험실 상황에서의 행동관찰이 가능하였지만 보다 자연스럽게 다양한 상황에서 영아의 행동과 어머니의 반응양상들을 관찰하고 조사하여 일관된 결과가 입증되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 특히 서양적인 사고의 틀에서 우리나라 영아와 어머니들의 행동을 평가하고 그 의미를 논의한다는 한계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우리의 고유한 사회 정서적 특성이나 양육행동의 장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의 방법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김경희(2004). 아동의 기질과 부정적 정서 및 정서조절 전략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355-370.
- 이옥임(1996). 아동의 화 정서 이해 및 화 정서 조절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ornstein, M. H., & Tamis-LeMonda(2001). Mother-infant Interaction. In J. G. Bremne & A. Fogel (Eds.), *Blackwell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pp. 269-295. Blackwell publisher.
- Bretherton, I., Fritz, J., Zahn-Waxler, C., & Ridgeway, D.(1986). Learning to talk about emotions : A functionalist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57, 529-548.
- Calkins, S. D., & Johnson, M. C.(1998). Toddler regulation of distress to frustrating events : Temperamental and maternal correlates.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21(3), 379-395.
- Campos, J. J., Mumme, D. L., Kermonian, R., & Campos, R. G.(1994). A functionalist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emo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 240, pp. 284-303.
- Caron, A. J., Caron, R. F., & MacLean, D. J.(1988). Infant discrimination of naturalistic emotional expressions : The role of the face and voice. *Child Development*, 59, 604-616.
- Cicchetti, D., Ganiban, J., & Barnett, D.(1991). Contributions from the study of high-risk populations to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In J. Garber & K. A. Dodge(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pp. 69-88).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e, P. M., Michel, M. K., & Teti, L. O.(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 A clinical perspective. In N. Fox(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Society for Reserach on Child Development Monograph, 59, Serial No. 240, pp. 73-100).
- Diener, M. L., & Mangelsdorf, S. C.(1999). Behavioral strategies for emotion regulation in toddlers : Associations with maternal involvement and emotional expressions.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22(4), 569-583.
- Dunham, P., & Dunham, R.(1992). Lexical development during middle infancy : A mutually driven infant-caregiver proc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414-420.
- Dunn, J., Bretherton, I., & Munn, P.(1987). Conversations about feelings states between mothers and their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132-139.
- Garber, J., & Dodge, K. A.(Eds.) (1991).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uvain, M., & Fagot, B. L.(1995). Child temperament as a mediator of mother-toddler problem solving. *Social Development*, 4, 257-276.
- Gianino, A., & Tronick, E.(1988). The mutual regulation model : The infant's self and interactive regulation and coping and defensive capacities. In T. Field, P. McCabe & N. Schneiderman(Eds.), *Stress and coping across development*(pp. 47-68). Hillsdale, NJ : Erlbaum.
- Grolnick, W. S., Kurowski, C. O., McMenamy, J. M., & Rivkin, I., Bridges, L. J.(1998). Mothers' strategies

- for regulating their toddlers' distress,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21(3), 437-450.
- Grolnick, W., Bridges, L., & Connell, J.(1996). Emotion regulation in two-year-olds : Strategies and emotional expression in four contexts. *Child Development*, 67, 928-941.
- Halpern, L. F., & Brand, K. L.(2001). Child Behavior Problems : A Function of Temperament, Emotion Regulation and Coping. In L. F. Halpern & K. Shipman(Chairs),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Coping : Implications for Psychosocial Adjustment. Symposium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inneapolis, MN.
- Halpern, L. F., Garcia Coll, C. T., Bendersky, K., & Meyer, E. C.(1999). The Contributions of Temperament and Maternal Responsiveness to the Mental Development of Small-for-Gestational Age(SGA) and Appropriate-for-Gestational-Age(AGA) Infants.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 Kopp, C.(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9-214.
- Kopp, C.(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 243-254.
- Mangelsdorf, S. C., Shapiro, J., & Marzolf, D.(1995). Developmental and temperament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66, 1817-1828.
- Parritz, R. H.(1996). A descriptive analysis of toddler coping in challenging circumstance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9, 171-180.
- Pecheaux, M. G., Findji, F., & Ruel, J.(1992). Maternal scaffolding of attention between 5 and 8 month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7, 209-218.
- Pettit, G. S., & Bates, J. E.(1989). Family interaction pattern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from infancy to 4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413-420.
- Rossmann, B. B. R.(1992). School-age children's perceptions of coping with distress : Strategies for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rivation of adjust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3, 1373-1397.
- Rothbart, M. K., Ziaie, H., & O'Boyle, C. G.(1992). Self-regulation and emotion in infancy. In N. Eisenberg & Fabes, R. A.(Eds.), *Emotion and its regulation in early development*(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55, pp. 7-23). San Francisco : Jossey-Bass.
- Sarason, I. G.(1984). Stress, anxiety, and cognitive interference : Reactions to tes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29-938.
- Saxon, T. F., Clombo, J., Robinson, J. E., & Frick. (2000). Dyadic interaction profiles in infancy and preschool intelligenc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8(1), 9-25.
- Thompson, R. A.(1994). Emotion regulation :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In N. Fox(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 Monograph, 59, Serial No. 240, pp. 25-52).
- Tomasello, M., & Farrar, M.(1986). Joint attention and early language. *Child Development*, 57, 1454-1463.
- Tronick, E. Z.(1989). Emotions and emotional communication in infants. *American Psychologist*, 44, 112-119.
- Zeman, J., & Gaber, J.(1996). The interpersonal context of emotion : Anger with close friends and classmates. *Child Development*, 67, 957-973.

2005년 8월 30일 투고 : 2005년 11월 3일 채택